

中國가는 길에서 (一) 奉天見聞

李灌鎔

△十八日 아침 奉天行 特急列車에 몸을 실니어 京城을 등지고 오래 동안 憧憬하던 新興 中國으로 向하여 달니게 되었다. 車窓으로 돌니어 드는 滿野의 秋色도 좇커니와 열니고 닷치어 움직이는 景觀속에서 旋風가티 일어나 압흘 가리우는 것은 오작 四億萬 中國民의 國民運動이 잇슬 뿐이었다. 이 날은 難關만튼 日中交涉이 正式으로 열니는 날이었다! 五院副 院長도 이 날에 決定되리어니! 생각은 꼬리달어 쫓업시 늘어갓섰다. 어서 가보앗스면 하는 조이는 마음에 한 가지 걱정이 머릿 속을 어지러히 하엿다. 이는 移動警察이 행여 나의 길을 늦추어 늦치나 아니할가하는 걱정이엿다. 그러나 行具를 搜索하거나 自體를 뒤지거나 威脅的으로 質問하는 等은 도모지 업섰다. 다만 新義州, 安東 兩 驛에서는 밤 열점이 지나갓만 警官 隊와 捕口된 朝鮮사람이 만히 往來하는 것을 칼 소리와 콩크리트에 부딪치는 구두소리를 드르면서 불 썩 이것이 非常時의 非常한 生活이란 것을 깨닫지 안이치 못하엿다. 安奉線에는 武裝한 警官이 移動警察의 職務를 썩인 것 가트나 乘客을 一一히 檢査하는 것은 보지 못하엿다.

△十九日 아침 일곱시 썩 되어서 汽車가 奉天에 드러올 썩 日本사람 乘客들은 車窓으로 내다보며 故 張元帥의 탃든 汽車가 爆發되든 곳을 차즈면서 當時의 光景을 興味있게도 이야기를 한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奉天 驛前 너른 마당에는 數千餘命의 日本陸軍이 休息하고 잇는데 『야마도』호텔 客室窓으로부터 이 光景을 내다보고 섰는 美國사람 旅客들은 中日關係에 對하여 論爭이 시작되엿다. 그 한사람이 日兵을 가리치며 그것만 가지고는 奉天市커녕은 滿洲全體를 支配할 수 잇겟다고 主張한 즉 그 다른 사람은 現在의 中國陸軍이 그 組織과 能率에 잇서서 以前보다는 越等히 다름으로 넘우 蔑視할 수 업다한다. 甲이 日本陸軍의 世界的 最高地位를 論한즉 乙은 이것을 는

認하면서도 中日問題의 武力的 解決의 主張을 獻한다. 『우리는 걸핏하면 中國을 잠자고 잇는 獅子라고 불렀지만 깨여났다는 中國을 다시 생각하면 잠자는 獅子란 것보다 惡夢속에 잇는 왜가리 갓데 空然히 소리만 지르고 세만 쓰지 안는가』하고 나를 日本사람으로 본 甲이 가장 내게 愉快한 말이나 한 듯이 나를 쳐다 본다.

마시든 차잔을 놔코 나는 다시 한 번 생각하였다. 이 사람은 中國의 覺醒을 疑心한다. 이 疑心은 누구든지 웃을 것이다. 그러나 『暗黑』하다는 中國에 果然 光明이 생겼는가? 固定不變한다는 『亞細亞的』 文明이 眞正히 動搖되었는가? 나는 決코 中國이 當面한 外交問題 國民政府의 新 組織 官公界 人物의 地位移動 等만 보러 이 먼 길을 쉼나고 십지는 안었다. 만일 中國에서 이번에 이러한 運動이 眞正한 『革命』 運動이라면 그 革命運動의 主體와 特質이 어찌하며 그것이 國境을 넘어 世界에 미치는 影響이 어찌함을 무엇보다도 보고 십흔 것이다. 여간 都市女子 몇 사람의 桴근머리만 보고 이것이 革命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鴉片과 孔廟가 眞正히 타사버렸는가? 만일 眞正히 타다면 그 타고남은 재우에 桴그럽지 안흘만한 新文化의 建設이 잇는가? 만일 아즉 업다면 將次 잇슬만한 基礎는 엇지 닥고 잇는가? 이것이 보고 십혔다. 何如間 支那民族이 方今 前 無하든 動搖를 經驗하고 잇는 것은 事實이다. 地理的으로 文化的으로 또 政治的으로 가장 갓잡게 잇는 우리 朝鮮으로서 中國의 消息을 外國 電報通信에만 依托하는 것은 等閑에도 이 가튼 것이 업슬 것이다. 이제 나는 넓고 活氣잇는 이 中原에서 無限히 自由를 甯기면서 돌아다닌다. 듯고 보는 바가 새로운 甯김을 더할 쏘이다. (十九日 奉天에서)